

## 메탈로센 PE 신제품 Enable 출시 케미컬 업계 리더, 제품개발 주력



David P Dillemath  
엑손모빌케미(상해) 총책임자



William L Handy  
엑손모빌케미(상해) 기술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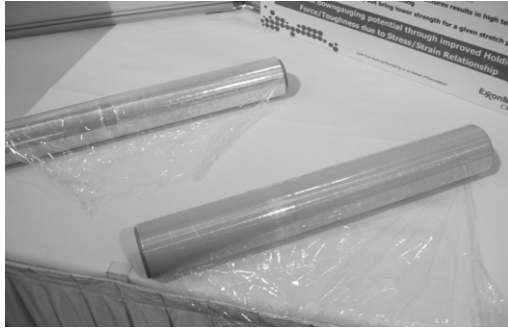
엑손모빌케미칼이 메탈로센 PE 신제품 Enable 을 출시했다.

엑손모빌케미칼은 지난 달 15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Enable™ mPE and Exceed™ mPE-A Portfolio to Expand Your Horizons”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엑손모빌케미칼 아시아태평양 PE 총 책임자인 David P Dillemath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요 확대를 위해 상해에 기술센터를 갖추고 있다면 서, 아시아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원유공급에서 완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싱가포르 공장을 준공 중이며, 하반기 메탈로센 PE 공장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엑손모빌케미칼이 선보인 Exceed™ mPE는 이미 한국시장에 10여년 전부터 공급해 왔던 것으로 기계적강도가 우수한 멀티레이어 제품이다. 그에 반해 Enable™ mPE은 모노레이어로 가공성이 좋은 점이 특징이다.

Exceed mPE는 비용절감 효과(원재료, 자재, 인도시와 폐기시)를 가져왔으며 특히 포장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고객만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구성이 뛰어나며 인쇄시의 품질을 개선시키는 등 기존에 야기되어 왔던 고객들의 요구를 개선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증대시켰다.



▲ 엑손모빌케미칼 메탈로센 PE 신제품 및 적용사례

Exceed mPE는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라인 끝에서의 포장 속도를 증가시켜 주며 포장의 유통 기한을 늘일 수 있다.

William L Handy 기술 책임자는 “메탈로센 촉매를 활용한 엑손모빌의 PE 제품은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이 좋은데 반해 가격경쟁력도 우수하여 다양한 각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두께가 얇고 접착력, 스트레치성 등이 우수해 패키징 시장 요구에 적절하게 부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25마이크론 가량이었던 두께에 반해 10마이크론 가량으로 얇아 낮은 온도에서도 실링이 가능, 라인스피드를 높일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라고 전했다.

William 매니저는 “Exceed™, Enable™은 얇고 질긴 특성으로 인해 랩핑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투명도가 높고 햇볕 투과성이 높아 비닐하우스로도 제작되어 농작물 재배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엑손모빌의 Exceed™와 Enable™의 경우, 패키징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가 선정해 블렌딩이 가능해, 기계적 강도의 우수성을 높일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avid 매니저는 “현재, 패키징 뿐만 아니라 전 산업계에 ‘에너지 절감’ ‘에너지 효율화’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엑손모빌케미칼은 케미컬시장의 리더라는 자부심으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제품 개발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